



대중없는 '과학의 대중화'를 반대한다,

과학 기사에 대한 과학적 성찰... 주체적 기사 읽기

독자들은 한 권의 책을 통해 책의 정보와 그것을 집필한 저자를 만난다. 책의 정보라면야 본문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지만 저자에 대한 정보는 책날개에 적힌 몇 줄이 전부다. 독자는 그 몇 줄의 정보만으로 저자의 이력을 파악하고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 심도에 대해 가치평가를 내린다. 인류학자가 과학책을 내기라도 하면 의아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 때로 저자의 논지를 불신하기도 한다. 《과학은 열광이 아니라 성찰을 필요로 한다》를 낸 이충웅 씨는 그래서 “책날개에 적힌 내 이력에 집중하지 말아 달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전공에 얽매입니다. 전공이 아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다르게 보기도 하지요. 저는 대학 때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지만 대학원에서는 과학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두 학문이 다르다고 여기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문방송학은 사회과학의 한 영역이지요. 전공에 얽매이지 않아야 학문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학문 사이의 장벽을 깨는 일', 즉 개인의 관심사를 따라 전공을 넘나드는 글쓰기를 시도하는 이유다. 그의 첫 저작인 이번 책도 그러한 맥락에서 씌어졌다. 대상은 독자, 그것

도 과학기사를 '너무 믿는'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책은 “‘과학시대’를 사는 독자의 주체적 과학 기사 읽기’라는 부제가 보여주듯 과학기사에 대한 과학적 ‘비판’ 내지는 ‘성찰’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 때부터 과학기사를라면 가릴 것 없이 스크랩해 온 것이 결실을 맺은 셈이다. 이씨는 “애초부터 책을 쓸 생각은 없었지만 과학 기사를 점검해 줄 책이 있어야겠다는 필요성은 진작에 느꼈다”고 한다. 올 초부터 본격적인 집필을 시작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도 과학기사를 독자들이 비판적이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학제간 장벽 넘나드는 글쓰기... '논리적 과학읽기'가 책의 콘셉트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을 어려워합니다. 언론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도 여기서 비롯되지요. 사건·사고에 관한 기사도 잘못된 것이 의외로 많은데, 특히 과학은 그 정도가 놀라울 정도로 심해요. 언론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사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에게 정확한 이론을 알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책 자체 콘셉트는 ‘논리적 과학읽기’다. 이씨는 논리를 파악한 다음에는 각자의 감성에 맞추어 읽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과학도 자기의 개성과 논리를 접목시켜 보면 결코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이 책을 ‘인문학’으로 분류한다. 과학과 그에 대한 이론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중심이 되는 것은 과학기사이기 때문이다. 기사 외의 자료는 책의 주제를 흐트러지게 할 뿐이라는 생각에 기간 수집한 기사만을 참고했다. 무엇보다 기사와 기사들끼리의 관계, 그 내부의 과학적 사실을 조목조목 밝히는 데 집중했다.

책은 식물연구, 식량생산, 미래예측, 황우석 교수의 연구 이론을 담은 후반부까지 각 장에 독립적인 논리를 묶어놓되 전체적으로는 그것들이 과학기술이라는 이름 아래 상관성을 잃지 않도록 구성했다. 특히 4부 <과학은 ‘열광’이 아니라 ‘성찰’을 필요로 한다>에서는 2003년 말 ‘황우석 이슈’의 물꼬를 텃던 광우병 내성 소에 대한 보도를 가장 처음으로 도마 위에 올렸다. 책에 따르면 황 교수는 광우병의 원인인 프리온(prion)을 ‘과발현’ 시키거나 ‘아예 제거’한다면 광우병에 안 걸리는 개체가 만들어질지도 모른다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기사에는 프리온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황 교수의 이론을 입증하는 데 대한 다른 의문이 담겨 있지 않았다. 따라서 기사에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소’가 아니라 ‘안 걸릴지도 모르는’, 또는 ‘그럴 수도 있는’ 가정을 붙였어야 했다.

“게다가 광우병 파동의 대단한 반전을 가져왔던 황 교수의 이론은 스탠리 프루시너Stanley B. Prusiner의 ‘프리온 학설’에 비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각종 프로그램과 지면을 통해 프리온과 광우병을 다뤄왔어요. 그만큼 스스로 ‘학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가진 광우병에 대한 지식은 놀라운 만큼 무지한 상태입니다. ‘광우병 내성소’에 대한 보도는 조심스러웠어야 했어요.”

쉬운 과학이론으로 과학기사 문제부분 발체, 지적

이렇게 하나의 이론마다 수집한 기사를 인용하고 그와 비슷하거나 반대가 되는 다른 기사를 추려내는 작업에 품이 많이 들었을 법도 하지만, 이씨는 “오히려 기사 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이론을 쉽게 풀어쓰는 작업이 힘들었다”고 말한다.

“그런 작업은 오래 해온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다. 다만 워낙 과학의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다보니 한 문장 한 문장 써내려가면서 이 개념이 옳은지 그렇지, 과학적인 정확도를 따지기 위한 작업이 중요했어요. 백과사전을 수도 없이 펼쳤습니다. 독자들이 기사는 믿지 못해도 이 책은 믿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우리 과학계는 독자들과 친해지는 과학,

즉 ‘과학의 대중화’라는 명목으로 과학이론을 지나치게 가볍게 만드느라 뼈 드러난 부분이 의외로 많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는 “사람들은 ‘과학 대중화’라는 말을 무조건 옳고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만 정말 그런지는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대중매체들은 과학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호감을 끌기에 충분한, 놀라운 발견과 발명 혹은 개발과 혁신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씨는 특히 ‘획기적’이거나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 외에는 별다른 논평이 붙지 않는 ‘단발성’ 뉴스를 지적한다.

이를 위해 그는 기사 읽기에 관한 바람직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제목을 읽어라, 숫자를 의심하라, 기사 후반부 내용을 소홀히 읽지 마라, 과거의 기사를 무시하지 마라 등이 그것인데, 이 책 후반부 <이미 알고 있으나 읽기 쉬운 ‘팁’>에 담아두었다. 본문 내용을 다시 정리해 일괄적으로 모아둔 것인데 독자들의 반응이 특히 좋다.

“누구나, 어디서나 과학을 생각하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구나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구분이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앞서야겠지요. 어떤 분야가 됐든 폭넓게 알아야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지만 한다면 학문의 영역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어요. 앞으로는 책에 따라 형식도, 글쓰기도 좀더 다양하게 시도할 생각입니다. 이전부터 미술사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글썽요, 가명을 쓰면 모를까, 그런 책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저자의 명성을 중시하고 ‘팔리는 책’ 만들기에 급급한 우리 출판시장에 그는 고개를 젓는다. 그러나 이씨의 마지막 말은 그의 또 다른 학문적 관심사를 실명으로, 때로는 가명으로라도 끊임없이 넓혀나갈 것이라는 의지의 다른 표현일 터이다. **주목**

취재 홍이현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 책에 붙이는 이제이북스의 변

철학책 출판에 힘써 온 이제이북스가 《과학은 열광이 아니라 성찰을 필요로 한다》로, 창립한 지 3년 만에 처음 국내저자를 펴냈다. 서영심 편집장은 “소규모 출판사에선 관창은 국내저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며 번역서만을 다뤄왔던 그동안의 심정을 토로했다. 그래서 이번 책에 거는 기대와 애착도 남다르다.

이충웅 씨와 서 편집장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이전부터 끝없이 과학 기사읽기에 대한 책의 필요성을 얘기해 왔다. 이씨의 글 재주를 눈여겨본 서 편집장이 먼저 책 쓰기를 권유했고 “꼼꼼하고 엄격해 출판사 입장에서는 결코 편하지 않은 저자”라고 하면서도 집필이 끝날 때까지 이씨를 격려하고 독촉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책이 정직하게 나와 줘서 고맙다”고 답한다. 눈에 띄는 제목을 만들거나, 국민적 관심사인 황우석 박사 얘기를 초반부로 끌어낼 수 있었지만 애당초 저자가 가졌던 본연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 목적을 버려준 까닭이다. 이제이북스는 이번 책을 필두로, 역량 있고 참신한 국내저자와 새로운 형식을 시도할 수 있는 책 출판에 힘쓸 전망이다.